

양계불황 타개의 지름길은 가격안정에 있어

이 재 근

고려대농대교수, 농학박사
한국가금협회 회장 역임



올해로 14 돌을 맞는 월간양계에 대하여 무한한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오늘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희생적 봉사를 해오신 창간 이후의 월간양계 관계진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감사로 보낸다.

월간양계 10월호 통권168호를 받아 보면서 무한한 감회와 감격을 느낀다. 만 14년간 한달도 결권이 없이 매달 발행되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참 자랑스럽다. 다른 잡지사들모양으로 운택하고 화려하지도 못하며 때로는 궁색하기 그지없기도 했던 터이기에 더욱 오늘의 발전적 현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다시 한번 14년간의 개간(皆刊)을 축하한다.

월간양계 14년의 기복과 성쇠의 발자취는 우리나라 양계업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하겠기에 또한 깊은 감회를 느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한 공업분야의 경이적이며 화려한 변모는 고사하고 생산물가격의 극단적인 불황속에서 위축과 부진만을 강요 당하여 우리나라 축산분야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정말 서글프고 한탄스럽다. 이러한 우리 양계업의 어제와 오늘속에서 월간양계가 건전한 14 돌을 맞았으니 더욱 대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월간양계는 저간 양계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의 기관지로서 양계인을 대변하는 정책적 건의도 해오기는 했지만 생산기술 정보의 제공, 유통의 개선, 소비증대 방안의 제시, 사료, 질병에 관한 제보, 생산물 시세의 전달 및 예측, 양계부문 및 축산 각분야의 동태의 전달 등 주로 양계생산에 관한 정보 매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는데 전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월간양계 14 돌을 맞아 필자는 지나 온 과거를 회고 검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몇가지의 소견을 생각해 본다.

첫째로 월간양계는 양계생산업 단체의 전통과 영광을 지닌 대한양계협회의 기관지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양계생산자를 대표하고 대변하여 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책, 시책개선 방안연구와 건의, 자료의 제시, 선진외국의 자료수집과 연구, 양계 생산자들의 여론의 수렴, 생산자의 화합과 단결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와 촉구 등 항상 중점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는, 지속적이며 집요하고 투쟁적인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책연구사향으로는 양계산업 안정기금의 창출방안, 양계산물의 계획생산과 조절방안, 계열생산의 촉진방안, 유통개선, 소비촉진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 행정당국에 양계전담 부서가 설치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하겠다. 공업분야의 적정가격과 시책적 비호속에서의 발전과 번영을 똑똑히 보고있는 우리 양계인들은 양계정책 부재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부탁할 일은 외국문헌의 수집과 소개이다. 10월호 특집으로 소개된 “닭고기의 발골포장과 구매방법”에서의 미국 N.B.C.의 자료 소개 등은 아주 잘 한 것이다. 양계에 있어 우리나라가 뒤져 있는 분야는 한두가지가 아닐것인데 계열생산, 도계처리, 가공, 유통의 근대화, 생산 및 처리가공의 기계화, 자동화, 생산 및 처리가공 분야에 있어서의 위생문제 등 매우 많다. 채란계나 브로일러 생산에 있어서도 최근에 아주 낙후되어 가고 있다. 유럽각국의 브로일러 생산의 기준을 보면 51 일에 2.0kg, 사료요구율 2.1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브로일러 농가의 생산평균치가 얼마인지도 조사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국인의 투고에 의한 현실감이 있는 자료도 필요하지만 선진외국의 현실을 지체없이 소개하여 독자의 분발과 연구를 촉진함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다.

정책, 시책을 포함한 양계에 관한 각종 문헌을 수집하여 전담분야를 두어 이를 섭렵하고 필요부분을 지체없이 번역 소개하고,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은 시책당국의 배려로 축산진흥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선진외국의 계사의 자동화 장치의 소개, 관리 기계, 기구, 처리가공기계의 소개 등 양계기구의 소개와 지식의 보급에 힘써야 하겠다. 우리나라 양제도 대형화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기계화, 자동화가 촉진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처리·가공분야 등은 아주 낙후된 현실이다. 양계기구의 분야에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서글프기도 하다. 가장 분발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월간양계지의 책임과 권위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투고자는 자기의 투고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자신과 권위를 가져야 하며 어설픈 지식이나 무책임한 주관적 창출 등은 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위에 몇가지 소견을 적었는데 무엇보다도 당면한 우리들의 과제와 염원은 채란계나 브로일러나 모두 가격과 경영의 안정이라 하겠다. 최근 몇해동안의 양계불황으로 국민들에게 당국의 저물가시책에 앞장 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제는 시책당국이 양계업자들에게 반대급부를 치루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기대해 보기도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양계업자들도 먹고 살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월간양계지가 앞장 서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간 14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거리질서, 상거래 질서, 경기장 질서 등 질서의 생활화로 선진국민의 자부심을 가지자.
- 식량자급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값싸고 영양가 높은 정부미를 먹자.

—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 —